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신석하 KDI거시경제팀

1. 최근의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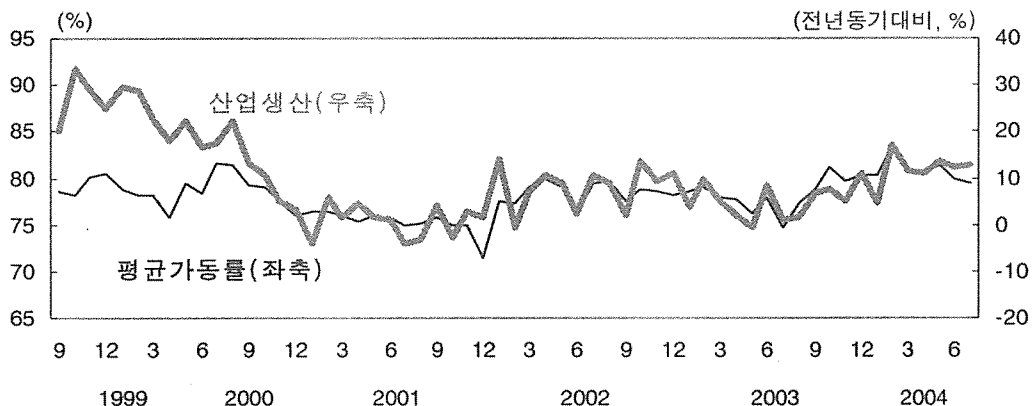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가 완만히 하강하는 모습이다.

작년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은 아직까지 호조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반도체·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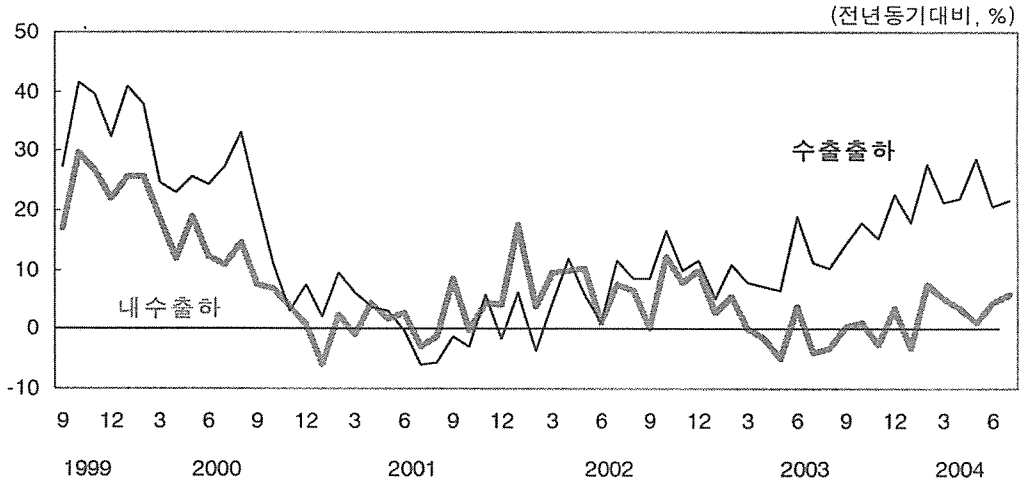
고 있다.

한편, 소비 및 투자 등 내수부문은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생산도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계절조정 실업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고용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소비자 심리지수

산업생산 증가율 및 평균가동률 추이



내수출하 및 수출출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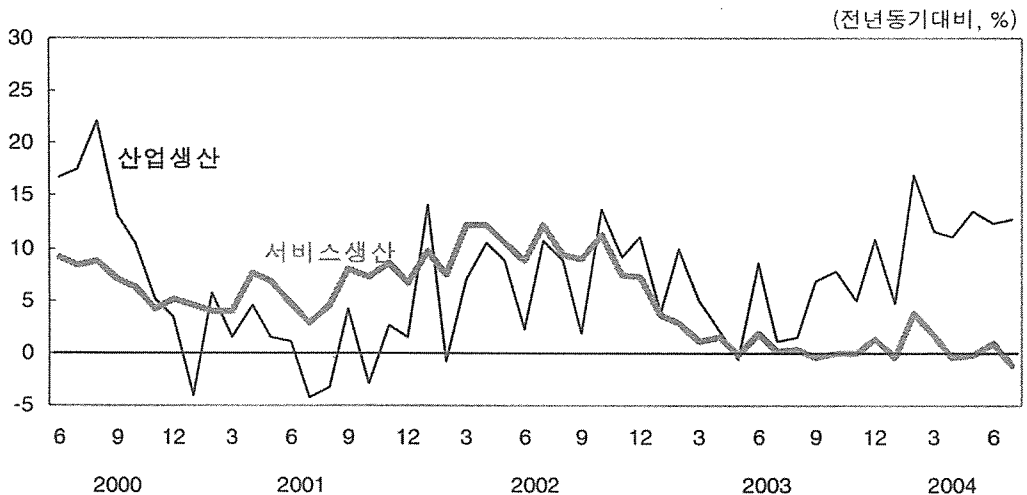


등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도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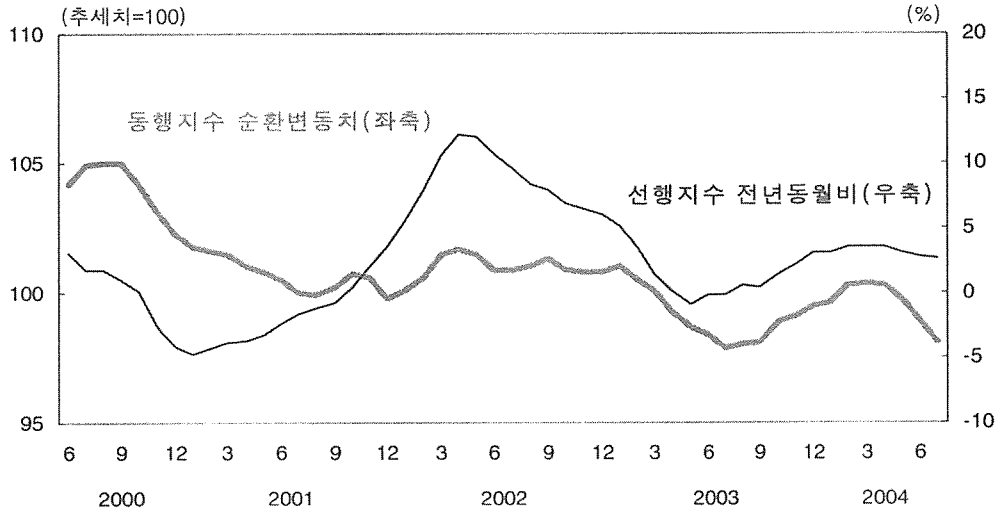
산업생산은 7월중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여 전월(12.4%)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

지하였으나 전년도 자동차 부분의 노사분규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를 감안할 경우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된 모습이다. 자동차부문을 제외한 산업생산은 8.9% 증가에 그쳐 전월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12.2%)에 비해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되었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0.1%의 소폭 감소를 기록하였다. 출하의 경우 수출출하의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내수출하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월중에는 생산의 증가세와 더불어 재고의 증가세도 소폭 확대되어 경기확장국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IT 부문은 생산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반면 재고의 증가세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7월중 서비스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하여 전월의 증가(0.8%)에서 반전하였다. 운수업 및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의 부문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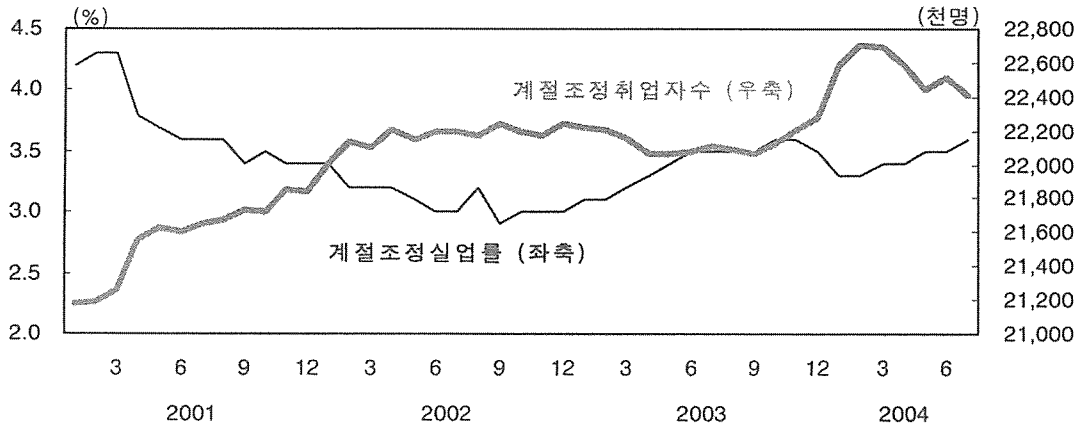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등 경기관련 지표들은 4개월 연속 하락

하여 경기가 완만히 하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7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98.1을 기록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2%p 감소하였다. 7월중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각각 1.4%, 1.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전월대비 감소로 반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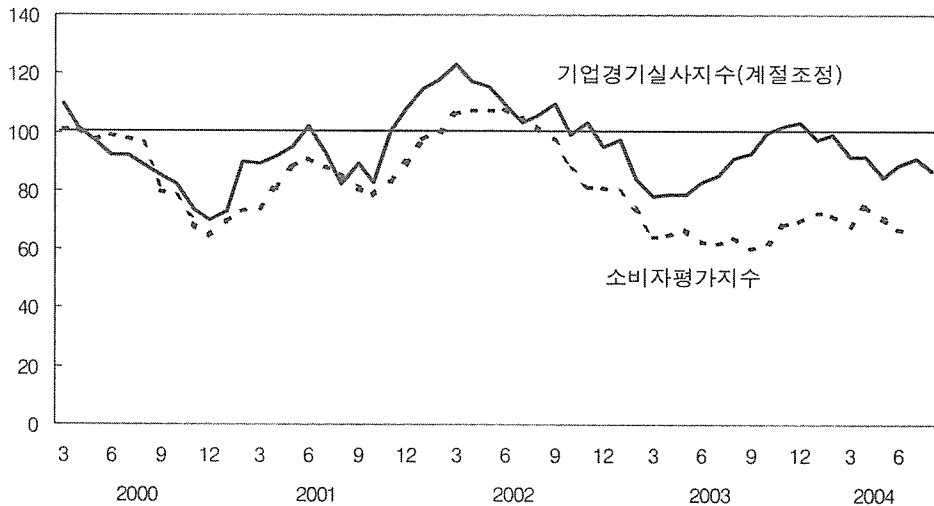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도 3.6%로 전월(3.5%)보다 상승하였다. 주당 36시간이상 취업자수 증가율은 7월중 1.7%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는 36시간이상 취업자의 감소세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데 대한 기술적 반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고용부진을 반영하여 명목임금상승률은 6월중 3.6%를 기록하여 작년 수준(9.2%)를 크게 하회하였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는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은 0%대로 추정된다. 내수부진의 지속과 고유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도 부진한 모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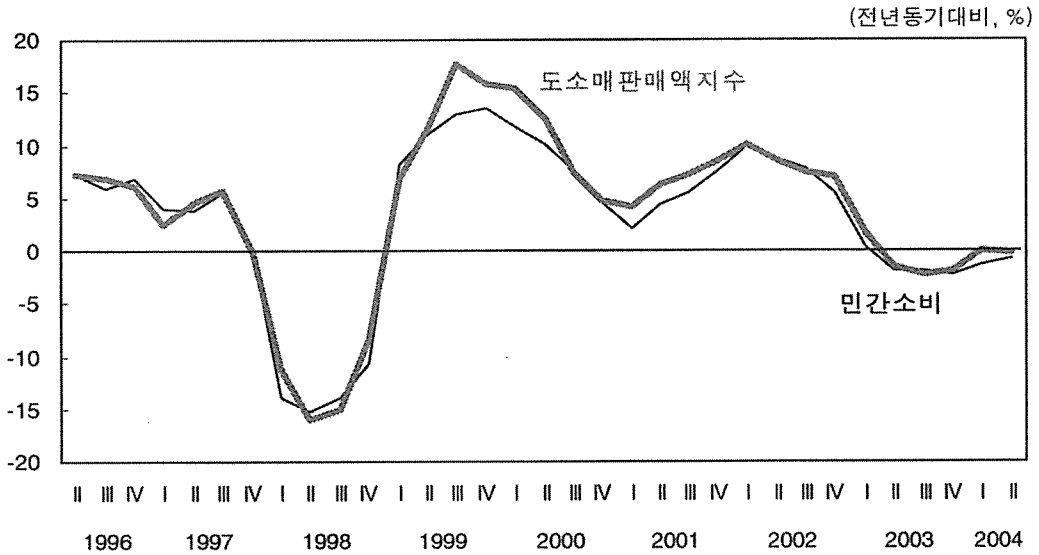
습이다. 8월중 전경련의 계절조정 경기실사지수는 전월(91.0)에 비해 다소 하락한 87.1를 기록하여 대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음을 시사한 반면, 중소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은행 BSI는 8월중 72를 기록하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나 전월(70)보다는 부진의 정도가 소폭 완화되었다.

II. 경기에 대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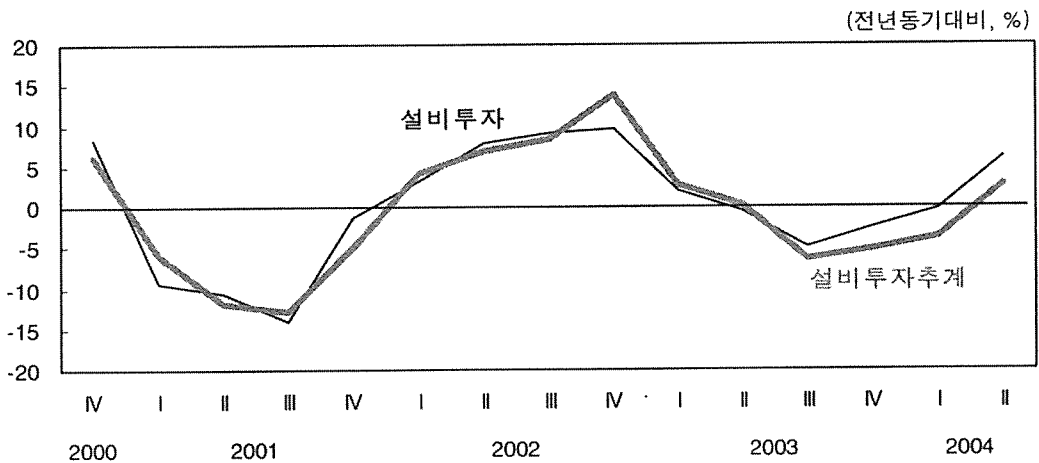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의 완만한 하강은 내수의 회복세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는 작년 4/4분기 이후 감소세가

민간소비와 도소매판매지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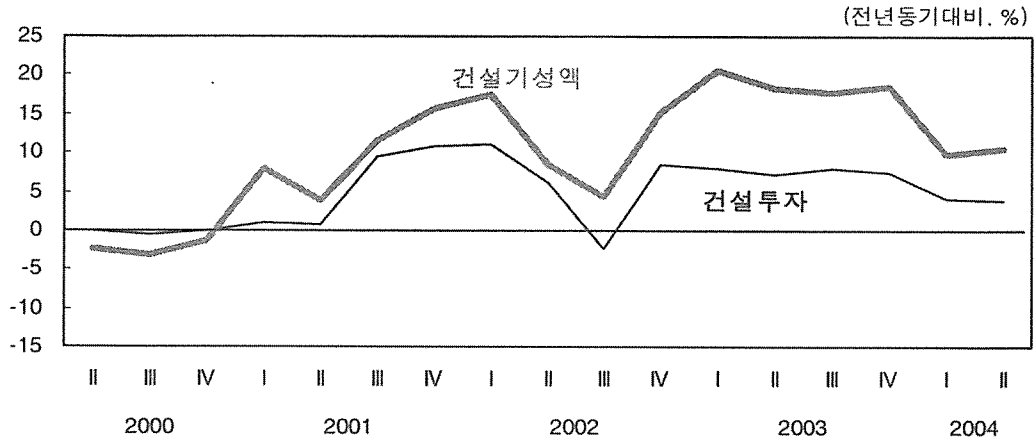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추계 추이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미약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다. 6월에 증가로 반전한 도소매판매는 7월중 도·소매업 판매의 증

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의 부진으로 전월(1.6%)에 비해 크게 낮은 전년동월대비 0.2%의 증가율을 기록하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의 추이



었다.

설비투자도 2/4분기부터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7월중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월대비 2.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6월까지 10%대 후반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온 국내기계수주가 7월에는 6.4% 감소로 반전하여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지난 2~3년간 급증하였던 건설투자는 최근 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하강세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7월중 건설기성액은 민간 및 공공발주 공사실적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여 전월(8.1%)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고, 금년 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던 국내건설수주도 7월중 -3.3%를 기록하여 전월(-36.9%)에 비해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건축허가면적도 7월중

주거용과 상업용에서의 감소세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24.9%를 기록하여 전월(-55.7%)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작년 이후 우리경제의 주된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은 고유가 및 세계경제 성장둔화에 기인하여 둔화세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8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3% 증가한 199억 달러를 기록하여 호조세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월간 수출액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하회하였고 증가율도 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제품의 수출증가율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중국, 일본, EU 등으로의 수출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전년동월 수입둔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도 작용하여 8월중 33.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월중 1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월(26.8억 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지수, %)

	비중 ¹⁾	2002	2003			200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건설투자	1.00	5.3	7.6	7.3	7.9	7.4	4.1	3.8	-	-	-
(계절조정)				(0.7)	(1.7)	(2.6)	(-1.3)	(0.5)	-	-	-
건물건설	0.61	14.9	14.4	13.2	15.3	13.8	6.9	4.1	-	-	-
기타건설	0.39	-5.3	-1.5	-0.5	-2.4	0.1	-1.8	3.3	-	-	-
디플레이터	107.9	115.4	114.8	115.9	117.1	121.3	-	-	-	-	-
(상승률)	4.4	6.9	7.1	6.9	6.4	7.6	-	-	-	-	-
건설기성액	1.00	11.2	18.8	18.4	17.9	18.6	9.8	10.7	9.7	8.1	10.6
공공부문	0.35	-8.1	14.8	9.1	14.0	21.1	-0.8	5.5	3.7	3.7	1.8
민간부문	0.62	24.5	22.2	24.9	21.4	18.9	16.3	13.3	12.4	10.4	14.9
국내건설수주	1.00	33.0	22.5	50.5	47.6	2.1	-14.2	-27.7	-24.0	-36.9	-3.3
공공부문	0.24	-1.1	2.8	25.9	30.9	-10.7	21.9	-29.4	-68.2	-18.5	22.0
민간부문	0.72	59.2	31.6	52.4	57.0	17.2	-22.2	-27.5	-15.6	-36.7	-17.6
건축허가면적	1.00	42.0	2.4	21.0	-2.0	-13.6	-27.7	-34.0	6.6	-55.7	-24.9
주거용	0.44	19.8	8.4	50.2	5.6	-12.1	-37.4	-42.1	17.8	-63.1	-53.3
상업용	0.32	92.6	-8.1	-0.6	-10.5	-19.7	-30.2	-34.9	1.3	-59.5	-5.3
공업용	0.10	13.5	-4.1	-14.4	-5.5	-13.7	-14.5	-22.6	-20.9	-29.2	32.2

주: 1) 비중은 2002년 연간 기준임.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소비자물가는 폭염 및 태풍피해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이 오름에 따라 8월중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7월(0.6%)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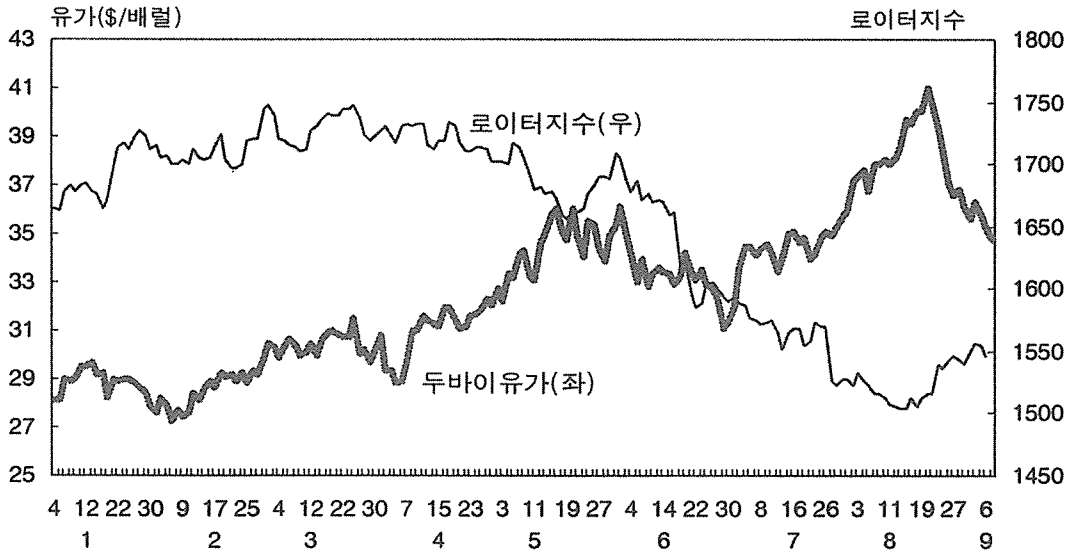
III. 대내외 경제여건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던 선진국 경제는 금년 2/4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미국경제는 금년 1/4분기

에 연율 4.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는 성장률이 2.8%로 낮아졌다. 자본지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둔화조짐을 보이던 소비와 고용도 최근 다시 확대되었으나, 소비와 생산의 선행지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일본경제도 전기대비 성장률이 2/4분기에 0.4%로 1/4분기(1.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감소세를 보이던 소비도 최근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증가율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국제유가 및 반도체가격 추이



유로경제의 경우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소비부진도 소폭 완화되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률은 금년 2/4분기에 전기대비 0.5%를 기록하여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중국경제는 경기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생산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 및 소비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투자 증가세가 다시 소폭 확대되었고 물가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원유수요가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 및 러시아 유코스사 파산가능성 등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여 8월 하순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정학적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산유국의 증산의지 표명으로 9월 이후 다소 낮아지고 있다. 반도체 국제가격은 제조업체

들의 공급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PC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 기인하여 8월중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미 달러화는 미국의 무역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부분적인 경기둔화를 반영하여 8월중 주요통화에 대해 약세를 시현하였다.

통화당국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8월 12일 콜금리를 3.5%로 인하하였으며, 정부는 2005년도 예산규모(안)을 확대하는 한편 부분적인 감세를 위한 2004년도 세제개편(안)도 공표하는 등 부양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IV. 향후 전망

연초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경제가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내수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6월경에는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5%대 초반으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였다. 최근에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내수부문의 회복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2004년 성장률이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증가세는 선진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IT부문의 경기하강 등에 기인하여 당분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는 당분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지만, 부진한 고용상황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유가급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가급등으로 인해 생산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교역조건 악화 및 무

역수지 흑자 축소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역조건 악화는 소득의 증가가 생산증가보다 낮게 만들어 결국 내수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개선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금년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금년도 성장률은 5% 내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금년 혹은 내년의 성장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다. 작년 말 이후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8월말 현재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3.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은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의 장기성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의 개방과 각종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